파독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제 8대~ 9대 회장을 역임한 회장 김춘동 입니다.

저에게는 4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끝 까지 함께 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과
오늘, 이 순간까지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회원님들과 한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행복이었고 한량 없는 감사였습니다.

특히, 바쁘심에도 또는 몸이 많이 불편하심에도 각종 행사와 회의는 물론 항상 희생과 봉사, 헌신만 하셨던 제 8대~제 9대 전, 현직 이사님, 감사님,
때로는 어려운 협회의 재정과 심적 여러 법적인 부담까지 감내하셨던 전, 현 임원 여러분께는 우리는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잊을 수 없는 동지였습니다.

제가 4년 재임 중 아쉽게도 협회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네 분의 이사님과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故) 전형배 전북지회장님!
전북 익산의 고(故) 임청섭 이사님! 대구의 고(故) 문종섭 이사님!
인천의 고(故)이영실 부회장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6..5.19 정기총회가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저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연합회 정관 제 4장 제 19조 ❶ 항은
“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과반수에 못미쳐 저의 업무를 인수인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동안 최선을 다했던 손병덕 후보님께 뜨거운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심에도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신 선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인 4년 전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 입성 당시, 저는 국가에 충성하는 심정으로 협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매번 총회때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한 표, 한 표는 우리 협회의 소통과 화합,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정말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그 작은 힘을 협회를 위해 보태는 것은 더 이상 우리 협회의 추락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하나 성한 곳 하나 없는 협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사명감에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저의 실천이 협회의 발전과 화합에 작은 밀알이 되었다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4년여 동안 업무수행 중 회장으로서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 때도 있었고, 바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 순간도 있었으나 그것은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

그러고 보면,
한국파독연합회 회장의 자리는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 헌신하는 자리였고,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파독연합회 회장 자리는 최소한의 재정 능력이 없이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협회운영비 건으로 단돈 십원 한장 지원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실장,기념관학예사급여로 7천만,협회건물유지보수비,3천만,수도.전화 전기외 건물관리비로, 2천4백만 총1억2천 4백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결의 합니다.

협회에서 필요한 모든 운영비는 회원님들께서 1년에 한번씩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 3만원과 따뜻하신 회원님의 특별후원금이 전부인 가난하고도 힘든 협회 입니다.
이 힘든 과정을 임원님들과 회장이 나머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주십시오.

근래 총회 시작후 총회 끝난 후 많은 전화가 저에게 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앞으로 협회의 진로에 대한 궁금한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❶ 첫번 째, : 이번 총회가 무산 되었으니 협회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❷ 두번 째, : 현 김춘동 회장이 4년여 동안 협회를 위해 봉사한 업무중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 줄 아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

❸ 세 번째 : 6기 집행부 이우연씨. 이흥규씨는 협회에 봉사 했으면 그만이지 본인들이 협회를 상대로 차용한 원금에 이자에 거기에 소송비까지를 오피스텔 강제경매로 다 찾아 갔는데 김춘동 회장은 과연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수 있는지 ?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고 선포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 대한

❶ 첫번 째, 답을 드립니다

향후 회장이 없는 협회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와 똑같이 협회는 운영되고 지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u>정관 제 11조 3항 임원의 임기</u>
<u>"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고 되어 있습니다.
차기 총회에서는 정직하고 훌륭하신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고 다음 총회시 회장 후보 등록 공고에 참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장 중요 문제인 현 협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현재 협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사항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 되어 있는 우리 숙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행히도 민주당 박홍배 의원님이 금년 2월 6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5인과 함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2216631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신으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직접 국회 박홍배의원 의원실에 방문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6.3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협회와 함께 활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4. 7. 31.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13인과 대표 발의 했었고 (의안번호2203880)
2024. 11. 6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 17명과 대표발의 (의안번호2205293)
6.3 선거 지나면 국회의 각부서도 달라지고 하여 지금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가 2024.7.31. 처음 시작을 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목표한대로 어차피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일은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쉬운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❷ 두번 째 답을 드립니다

그 동안 협회를 위해 사용된 내용과 금액은 제가 적어놓지도 않아서 자세히 알수도 없지만 짐작컨대 우리 오피스텔 낙찰된 금액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낙찰금액 2억7천오백만)

❸ 세 번째 답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저 김춘동은 이 모든 것은 절대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 흔쾌히 포기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은 저한테 전화하신 분께서는 제가 포기하겠다고 선포 하였으니 협회를 위하여 봉사하러 온 저의 양심과 인격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다음 총회를 통하여 합법적인 연합회의 회장이 선출되면 저 김춘동은 60년 전통의 (경기 포천시와 남양주시에서 3대째 이어오고있는 농자재백화점) 본연의 사업에 바로 전념할 생각할 것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성과와 결과로 증명해 보여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독 회원여러분 !
파독의 주체인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때에
“회비는 회원의 의무”를 지켜주시고 이번 총회시에 회비 납부하여 주신 (37분)회원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일년 회비 3만원 납부하여 주시면 그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독회원여러분!
평소와 다름없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6. 5. 28 (목)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제 9기 회장 김 춘 동 배상

(회비납부 법인 계좌 : 농협 351-0595-9628-13 한국파독연합회)